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8월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 학위논문

가구소득이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최동준

가구소득이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on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Parental Interest, Self Study Time
and Reding Volume

2021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최동준

가구소득이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희서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일반사회)학위 청구논문
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최동준

최동준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용섭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성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희서 (인)

2021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Th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on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Parental Interest, Self Study Time and Reding Volume

Choi Dong-Jun

Advisor : Prof. Hwie-Seo Park Ph.D.

General Societ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While movement between different social strata through education in the Korean society had once been considered both general and equitable means, concerns that achievements in education are decided by the economic power of the parents who are able to afford expensive educational costs rather than the personal competencies of the students due to the boom of private education caused by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widened educational gap between different regions, and sharply rising university tuition. Kim (2020) have raised concerns of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household income and private education costs impacting the grades and education of the students gravely. However, since research results have found that the academic competencies of the students and the attention of the parents may enhance academic achievements even with weak economic power, this study aims to present useful implications in the dimension of social welfare

by assessing whether positive dimensions are able to alleviate the negative impacts in examination of negative impacts of the economic dimension on the academic dimension, by assessing the mediating effects - lack of attention of the parents as the positive environmental dimension and lack of self-study time and the amount of reading of the students as the competencies of the students along with lack of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 on the impact of household on academic achievements.

According to this study, monthly household income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mount of reading but had positive (+) effect on self-study time, attention of the parents, and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Furthermore, while self-study time, attention of the parents, and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had positive (+)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the amount of reading failed to have significant effect. Also, assessment of mediating effects showed that while self-study time, attention of the parents, and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mediated household income and academic achievements, the effect of the amount of reading was rejected. Lastly, household income had positive (+)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This study proposes that strategically utilizing these two variables for low-income adolescents with a focus on self-study time and attention of the parents would enable the government and the field of social welfare to contribute to narrowing the current gap in education.

KEYWORDS: Household incom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ttention of the parents, self-study time, amount of reading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학업성취도	6
제2절 가구소득	12
제3절 사교육	16
1. 학원	17
2. 과외	18
3. 공부방	19
4. 학습지	20
5. 온라인 학습	20
제4절 부모 관심	22
제5절 독서량	26
제6절 자습시간	28
제7절 선행연구 분석과 본 연구의 차별성	30
제3장 연구방법	32
제1절 연구모형의 설계	32
제2절 가설설정	33
1. 가구소득이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	33
2.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34

3.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35
4.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의 매개효과	35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37
제4절 연구 대상 및 분석방법	39
제4장 연구결과	42
제1절 표본의 특성	42
제2절 주요 변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44
1. 6월 전국연합학력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44
2. 9월 전국연합학력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45
제3절 경로모형 분석	47
1. 모형 적합도 분석	47
2. 총 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	50
제5장 결론	53
제1절 연구의 요약	53
제2절 연구 시사점	54
제3절 향후 연구 방향	58
참고문헌	59
국문초록	65
부록	66

< 표 차 례 >

<표 2-1> 학업성취도의 개념	7
<표 2-2> 가구 소득 수준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14
<표 2-3> 성적 구간별 전체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 및 참여율	15
<표 2-4> 국가별 수학 성적 격차 요인	24
<표 3-1> 측정도구	38
<표 3-2>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학교, 학생, 교사의 모집단 및 표본 크기	40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표본 특성	43
<표 4-2>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	45
<표 4-3>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	46
<표 4-4> 구조방정식 모형적합도	47
<표 4-5> 주요 경로 분석	49
<표 4-6> 총효과 분해표	50
<표 4-7> 간접효과 분석	51
<표 4-8> 가설검증결과 요약	52

< 그림 차례 >

[그림 2-1]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현황	13
[그림 2-2] 성적 구간별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21
[그림 2-3] 청소년의 학업과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 실태 조사	25
[그림 2-4] 독서의 상대적 영향력	27
[그림 3-1] 연구모형	32
[그림 4-1] 경로 분석 결과	4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현재 교육격차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예진(2021)이 제시한 실제 국내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최근 6개월 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것을 규명했다. 즉,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 9천 원인 데 반해, 8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갖는 가구는 50만 4천 원 원임을 제시한 것이다. 국내연구들(양준혁, 2020; 신중휘, 2020 등)은 이러한 가구소득에 따른 사교육 참여 수준 격차가 그들의 학업 성적과 수업 이해도 격차를 창출하는 주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은 더 나아가 자녀의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준다. 국가 장학금의 확충,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에서 저소득층 비율은 더욱 떨어져서 우려되는 점 중 하나이다. 내일신문(2013)의 소득계층별 대학진학격차 연구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 계층 자녀의 상위 1-10위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 계층의 자녀들에 비해 17배에 달한다.

또한, 김수현(2020)은 가구소득과 사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이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성적, 진학 고등학교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즉, 10년 사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생 성적이 우수한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학업성취에 있어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 유형의 학교 진학에 가구소득과 사교육비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점과 결부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이들 고등학교가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사회경제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가 창출하는 부작용으로 훼손되고 있음을 피력했다.

이렇게, 가구소득이 학업 성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교육비는 자명히 그 매개 역할을 할 것이나, 이것만이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가구소득이 저조하다고 해도, 해당 학생의 학습능력, 부모의 지원 등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다수 선행연구가 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는 사교육비 지출 정도, 부모, 가족의 지지 요인, 교우관계와 학생 개인적 차원인 학생의 심리, 학습 태도, 역량 요인 그리고 관계적 요인 등으로 구분, 정리할 수 있다.

신중호 외(2010)는 지각된 부모의 학업지원, 성취기대, 일상통제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부모의 학업지원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규명했고, 박영신·김의철(2009)은 청소년의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차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심리적 차원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또한, 이숙정(2011)은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한 결과, 각 학생의 학습몰입 역량 등 학업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여 상기 논지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즉, 가구소득과 같은 환경적 변인 이외에도 학생의 관계적 차원, 심리, 인지적 차원 등이 학업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가구소득이 높으면 교육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부모의 교육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여 학생이 질 높은 교육에 접할 기회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학습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독서량이나 자습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선행연구는 규명한 바 있다. 손진희·김안국(2006)은 일찍이 가정 환경이 학습량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규명했고, 김경태(2015)도 소득격차가 나는 도, 농간에 학습동기, 학습량 등이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규명했다. 또한, 이혜림(2016)은 가구소득이 아동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물질적 지원, 정서적 지원에 해당하는 관심이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함을 검증했다.

본 연구와 연구된 변수를 활용한 상기 선행연구들은 가구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교육, 부모자녀관계 등이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과 학생의 학업성취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배양함에 있어 담임의 역할과 같은 환경적 변수가 비중 있는 영향력을 가짐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가구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교사와 같은 환경적 차원과 자습시간, 독서량과 같은 학생의 내적 역량의 역할 모두를 고려한 매개역할을 검증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 동향과 한계에 따라,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환경적 변수인 사교육비, 부모관심 그리고 학생의 내적 역량인 독서량, 자습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좀 더 포괄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상기 연구 배경에 따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본 연구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현 소득격차에 따른 학업 성과의 차별성에 관한 심각성을 고찰하고, 소득격차가 그러한 학업 성과를 창출함에 있어, 기존에 검증된 학업성취도 창출에 순기능을 하는 다양한 변수들에 어떤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러한 성과를 창출하는지 규명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교육격차의 개념과 특성, 현황에 따른 심각성을 고찰하고 이러한 현실이 시사하는 바를 본 연구목적과 결부하여 조망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가구소득과 매개변수인 사교육비, 부모 관심, 독서량, 자습시간 그리고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 각각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주제의 구축 타당성과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제3장 연구 방법에서는 상기 이론적 배경에 따른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연구가설을 제시한 후 각 가설을 지지하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해당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제시하고, 연구 대상과 통계 결과에 대한 자료분석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4장 연구 결과는 표본의 특성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양상을 분석하고, 측정도구의 검증을 통해 본 연구의 도구 타당성을 검증하며, 주요 변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과 경로모형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여 논지를 명료화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연구 한계를 제시하여 차후 관련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 교과 과정을 익히는 과정상의, 학생들이 도달한 학습 수준이나 이해력, 응용력 따위의 정도이다(이일동, 2020). 연구자들은 학업성취도를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억, 재생하고 활용하는 정도에 관해 연구 도구로 측정한 능력(양평, 2017) 혹은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 기능, 지적능력, 가치관, 태도 등 학습결과를 총칭하는 개념을 의미한다고 했다(이현준, 2017). 즉, 주로 교육과정에 속한 교과목들의 수행 정도를 의미하며, 학습결과는 교수자나 시험 등 학습자 본인과는 별개의 특정 가치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교육목표의 완수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양애경, 2007).

또한, 학업성취도는 교육훈련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학습평가로 도출한 것으로써, 학생들 개개인의 성적과 행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학업성취도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지식과 지적능력, 가치관 등 학습결과물의 총칭이며, 인지적 영역은 물론 비인지적 영역 학습평가 결과가 포함될 수도 있다.

즉, 학업성취도는 학교가 설계, 제공하는 교수-학습과정을 통해 얻어진 교육의 목표 달성 정도로서 학생이 취득한 성적과 함께 행동의 변화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학업성취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지식, 지적능력, 태도, 가치관 등 학습 결과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적 차원의 학습 결과만이 아니라, 비인지적 영역의 학습 결과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광의적 개념과는 상이하게 교과 학습에 관해 배운 정도로서의 개념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일동(2020)은 학생이 학교 교과목에서 얻은 점수를 학업성취라고 정의하며, 신중호, 신태섭(2006)은 주어진 일련의 학습

과제를 교수-학습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로 학업성취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각각 분야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때 인지의 힘, 능력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및 타인의 내면적 정서 상태와 흐름을 이해하면서 통제와 조절하는 힘, 대처하는 능력, 끈기가 있게 추진하는 인내와 추진력 등이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학업성취는 전통적으로 관례로 정의적 차원보다 인지적 성취에 더 초점을 두어 온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지적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학교의 가장 기본적 기능으로 보는 데서 기인할 수 있고, 정의적 성취는 측정과 평가의 한계를 갖으나 인지적 학업성취는 명확하면서도 광범위하게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성과로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활용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를 지속 실시하는 실정이다. 인지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기초 학력과 학업 증진 정도의 추이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습을 위한 다양한 연구에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학업성취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자면 다음 <표 2-1>와 같다.

<표 2-1> 학업성취도의 개념

연구자	학업성취도 개념
김순택 (1978)	교과 성적은 물론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 학습과제의 성질과 종류, 수업방식 간 발생하는 상호작용 결과
신세호 (1983)	교수-학습과정을 통해 얻어진 교육 목표달성 정도로 학생이 취득한 성적 및 행동의 변화까지 포함
Astin (1991)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나타난 교육의 결과로서, 학생들의 질적인 변화와 발달 수준이라는 포괄적 의미
채선희 (2000)	교수-학습을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지적 발달 정도이며,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 변화를 포함

김신일 (2003)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지적능력, 지식, 태도 및 가치관 등 학습 결과의 총칭
박영신 (2004)	학습자 개개인이 인지하는 학습에 대한 도달의 정도
신중호 (2006)	주어진 일련의 학습과제를 교수-학습과정에서의 달성 여부
정우진 (2011)	학교 교육 성과로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
김은진 (2013)	교과를 학습한 지식, 지적능력을 측정한 결과

출처: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정리, 요약함.

이러한 인지적 학업성취도는 청소년 삶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학습자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사회 발전을 가능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자 자신을 포함한 학부모, 교사는 학교 교육을 통한 학업성취도에 큰 관심을 갖는다. 특히, 학력에 역점을 두는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성공스런 경험과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 경험으로 다수의 청소년, 학부모가 학업 성공과 실패를 지적할 정도로 학업성취도는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이일동, 2020).

한편, 교육격차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그 개념을 이러한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교육연한, 지역환경, 학교환경, 부모의 관여, 사교육 참여, 학습 관련 정의적 태도 등 다양한 형태 차이로 규정한다. 이는 교육격차라는 개념이 교육 영역 전반에서 개개인 간 차이를 유발하는 모든 현상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격차는 개인 간 차이를 내포하는 개념이므로 교육 불평등 개념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 불평등은 교육격차라는 실제적 근거에 기반하여 가치판단이 개입된 개념이라는 입장이 더 일반적이다.

교육 평등성과 관련하여 김신일(1999)은 불평등이 발생 가능한 지점에 따라 교육조건, 기회, 결과의 평등을 구분한 바 있다. 교육기회 평등은 좁게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에서, 넓게는 교육기회에

관한 접근 경로에 있어 계층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교육조건 평등은 교육기회에의 접근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효과성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교육결과 평등은 능력에 따라 교육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 관한 보상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소의 역차별을 통해서라도 개개인별로 균등한 교육적 결과를 산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김신일(1999)의 교육 평등성과 관련한 이러한 구분은 교육격차 구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격차 관련 선행연구들은 교육결과의 차이를 창출하는 요인을 탐색할 때 역점을 두는 요인에 따라 교육격차 개념을 차별적으로 간주하는데, 이때 교육격차 발생지점을 구분하는 기준이 상기와 같이 적용된다. 서울대학교 한국교육개발연구원(2017)은 교육격차를 ‘교육투입의 부족 혹은 결합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한 교육 산출의 차의 정도’로 정의했는데, 이는 교육결과 차이에 역점을 두고 교육격차를 논하는 관점이다. 김양분외(2010)는 ‘사회를 구성하는 지역, 성별, 계층 등의 집단 간에 나타나는 교육결과 차이와 이러한 교육결과에 이르는 과정(지역사회, 학교, 가정 등)의 차이’를 교육격차로 규정하면서 교육조건과 결과의 차이를 아우르는 교육격차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과거에는 교육격차가 학생들의 타고난 능력과 같이 선천적 변인에 따라 발생한다고 간주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최근에는 이보다는 관련 요인의 개인과 학교 수준에서의 투입요인, 교육과정 및 여건 차이, 교육결과의 산출 등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개개인 간 차이를 분석하는 체제론적 접근이 주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는 교육격차 개념은 사회 변화에 따라 강조점이 이동하며 변화를 겪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같은 보편교육체계가 정립하기 전까지 교육격차 논의는 주로 교육기회 격차를 줄임에 역점을 두었으나, 취학률이 학력아동의 완전 취학 상태에 근접되면서 학교시설, 교사의 수, 교사 경쟁력 같은 교육여건 차를 극복함이 주 현안이 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 교육격차 논의에서는 그 결과의 격차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었다. 1990년대 말~2000년도 초반에는 교육의 양적팽창과 함께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이 왕성하게 전개되었으므로 교육기회와 과정의 격차를 해소했을 때 교육이 중요한 사회적 이동 수단으로 기능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전개됨에 따라 교육 또한 계층 간 격차를 유지, 심화하는 수단으로써 성격이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육격차를 극복함으로써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격차에 관한 더 다양한 논의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류방란, 김성식(2006) 연구는 가정들의 교육적 지원 차이가 계층 간, 지역 간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며, 부모 소득이나 학력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도 교육격차를 창출하는 원인이나, 부모가 기울이는 자녀에 관한 관심과 지원활동이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초등학교부터 일관되게 나타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심화되어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상위집단 교육적 경험과 성취 수준은 크게 증대하고, 하층 집단은 더욱 하락하여 그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누적된 학습결손이 무력감을 창출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종순(2008) 연구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학부모가 인근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학생들만이라도 전학시켜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고, 결국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초등학교부터 학습부진 요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부진 요인에 따른 교육적 해결방안 혹은 처치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더, 최근 연구를 보면, 박미희(2020)는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연구를 진행하여, 경제적 수준, 사교육 참여에 따라 교육 결과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학교의 노력과 지원이 부족한 실

정므로 교육기회나 여건만 보장하는 기존 지원 방식으로는 현재 교육격차를 극복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장현진(2018)은 초등학교 소재 지역에 따른 진로교육 격차 문제를 연구했는데, 초등학교 소재 지역이 열악한 곳일수록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 차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진로교육이 열세인 지역의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렇게 교육격차 문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두고 그 실태와 해소방안을 주제로 논의해 온 문제이면서도 신자유주의 경쟁의 사회 문화 풍토와 모든 학생을 학벌 취득이라는 무한경쟁에 밀어 넣어 대다수 낙오자가 양산되는 교육구조가 악순환된다면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 착안하여 교육격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 다양한 변수들, 즉, 사교육비, 부모관심과 지원과 같은 환경적 차원, 학생들의 개별적 역량(학습능력: 본 연구에서는 독서량과 자습시간으로 측정함)과 같은 내적 차원 영향력을 총체적으로 검증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절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가정적 배경의 물질적 기반으로서 교육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이 낮은 부모는 자녀들의 필수적 교육을 지원하기에도 벅차고 학습에 필요한 도구, 교재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부담도 높다. 또한, 사교육 등 자녀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가구소득 부족에 따라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Brooks, Duncan(1997)은 지속적 빈곤은 학습자에게 더욱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했다. 안정된 주거환경과 주변 환경이 확보되지 못하면 경제적 차원의 문제는 물론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Conger et al.(2010)는 빈곤 문제가 부모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창출하고 우울감을 형성하는 등 자녀에 관한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의사소통을 보임을 강조했다.

가구소득은 개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차원에서 물질적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나, 부모와 자녀 간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친밀감, 정서적 관계 등은 이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김인경(2017)은 유아 언어발달과 관련하여 가구소득은 어휘력 발달과 무관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것과 표현 어휘력은 양의 관계에, 아버지 학력이 높은 것과 수용 어휘력도 양의 관계에 있다고 했다. 한편, 김광혁(2019)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가구소득 영향 분석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정도가 달랐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집중되어 나타났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사라짐을 규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러한 소득격차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이도연(2021)은 최근 규명했다. 그는 비대면 수업을 받고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공교육, 사교육 모두에서 소외되

어 교육의 빈익부가 더 심화되었음을 피력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2021년
 에 발표한 ‘2020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11.8% 감소했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만 보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0.3%가 증가했고,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가 더욱 높았다는 것이다. 200만 원 미만인 가구
 소득을 갖는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9.9만원임에 반해 가구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4만 원으로 규명되어 최대 5배의 차
 이가 난다는 것이다.

가구소득	사교육비(월 평균)	참여율
200만원미만	9.9만원	39.5%
200~300만원	15.2	50.5%
300~400만원	19.6	60.3%
400~500만원	25.7	67.8%
500~600만원	31.0	71.9%
600~700만원	35.7	74.2%
700~800만원	42.5	79.9%
800만원 이상	50.4	80.1%

[그림 2-1]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현황

출처: 2021.06, 23일, 코로나19 여파로 중학교선 학력 양극화·고등학교선
 학력 저하. 연합뉴스를 참고함.

또한, 경기도교육청(2019)도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음을 규명했다. 가구의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800만원 이상은 53만 9천원이고, 200만원 미만은 10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모든 소득계층에서 증가했다는 것이다.

<표 2-2> 가구 소득 수준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 분	사교육비(만원, %)			참여율(% , %p)		
	2018년	2019년	증감률	2018년	2019년	전년차
전 체	29.1	32.1	10.4	72.8	74.8	1.9
200만원 미만	9.9	10.4	5.2	47.3	47.0	-0.3
200 ~ 300만원 미만	15.6	17.0	9.1	59.4	60.4	1.0
300 ~ 400만원 미만	22.2	23.4	5.5	70.7	70.7	0.1
400 ~ 500만원 미만	27.9	30.0	7.5	75.6	78.0	2.3
500 ~ 600만원 미만	32.9	35.4	7.7	79.1	79.8	0.7
600 ~ 700만원 미만	37.3	40.4	8.1	81.1	83.6	2.6
700 ~ 800만원 미만	42.2	46.4	9.7	83.7	87.0	3.3
800만원 이상	50.5	53.9	6.6	84.0	85.1	1.1

출처: 경기도교육청. (2019).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또한, 성적이 상위일수록 가구소득에 따른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음을 제시했다. 사교육비는 상위 10% 이내 학생은 47만 5천원, 하위 20% 이내 학생은 24만 8천원으로 차이가 있었고, 전년대비 각각 23.7%,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상위 10% 이내 학생이 72.3%, 하위 20% 이내 학생은 48.9%로 차이를 보였고, 전년 대비 모든 성적 구간에서 증가했다.

<표 2-3> 성적 구간별 전체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분	사교육비(만원, %)			참여율(% , p)		
	2018년	2019년	증감률	2018년	2019년	전년차
전 체	32.1	36.5	13.6	58.5	61.0	2.4
상위 10%이내	38.4	47.5	23.7	65.8	72.3	6.5
11~ 30%	38.7	43.0	11.1	64.9	67.8	2.9
31~ 60%	34.6	38.5	10.8	61.0	62.8	1.8
61~ 80%	29.0	32.6	12.7	55.5	57.2	1.7
81~ 100%	21.1	24.8	17.5	47.4	48.9	1.5

출처: 경기도교육청. (2019).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따라서, 이렇게 양분되는 의견, 즉, 가정소득 차이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와 그렇지 못하다는 견해에 관한 명확한 연구결과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그 결과를 창출하는 기재들을 규명하여 전략적 시사점으로 삼아야 할 절실한 시점이다.

제3절 사교육

사교육비 혹은 사교육비 증가가 실질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주로 교육비 전체가 국가별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 사교육비에 따른 성취도의 결과 또한 연구자마다 상이하여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 힘든 실정이다(염복순, 2011).

초, 중, 고등학교를 불문하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가 일상화됨에 따라, 사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 전개되고 있다. 연구 초기에는 사교육의 실태 조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조사가 주를 이루었다(김청자, 2001). 이를 통해 사교육의 전반적인 형태와 규모를 파악하고 그 성행의 원인을 규명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연구들은 사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아닌 사교육에 대한 태도, 인식에 관한 연구였다(상경아, 백순근, 2005). 이를 보완하고자 사교육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으나, 그 결과는 일관되지 못한 실정이다.

사교육이 학업성취도를 증진하거나 이들 간 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들과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들이 공존하여 사교육 효과에 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정영애, 김정미(2002)는 사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성취 관계에 대해 성적이 높을수록 현재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사교육 경험이 성적에 영향을 미침을 규명했다. 한편, 이종재 외(2003)에서는 과외 수강의 효과에 관해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87%를 넘었고, 이는 보편적으로 과외 효과를 신뢰함을 나타낸다.

김경식(2003)에서는 과외 수업의 수혜자인 학생 입장에서 학교 수업과 과외 수업 간 상대적 효과에 관한 신뢰도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그 효과를 현재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게 지각함을 규명했다. 또한, 과외 수업 제공자인 대학생과 강사들도 과외 학습의 주관적인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김병규(2003)는 과외 학습에 관한 주관적인 효과 지각과 실제 효과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며, 특히 과외 변인 영향력은 가정배경 변인을 통제할 때 상대적으로 미약했고, 구체적인 과외 변인 영향력은 미미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양분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교육 현황을 보면, 과열된 교육 경쟁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대부분 기대하므로, 사교육은 더 이상 배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교육은 재능개발과 진로탐색을 위한 수단으로, 또 인성교육과 돌봄과 같은 가정 고유의 영역까지 대신 전개하며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사교육에 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할수록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문제가 더 커지면서 부정적인 인식도 깊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50년 동안 이러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사교육 억제 정책을 전개했다. 하지만, 사교육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을 유형별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원

일반적으로 한 명의 강사가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처럼 진도를 나가며 약속된 교재로 각 단원을 교육하는 형식의 사교육 시설을 학원이라고 한다. 2000년 이전은 종합학원이라는 입시위주의 학원이 주 형태였다. 종합학원은 한 건물에서 내신과 연관된 주 과목을 집중 교육하는 방식이다. 영어, 수학 등 주 과목 이외에도, 과학, 국어, 사회까지 부수적으로 포함시켜 학교처럼 정해진 시간표 내에서 수업을 전개하는 시스템이며, 충분한 교실과 과목별

강사를 모두 갖추어 시설 규모가 매우 크다. 제 2의 학교처럼 학생들의 생활 전반과 시험기간 동안 전 과목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학부모의 큰 지지를 받았고, 과외보다 저렴한 수강료는 많은 학생을 모집함에 장점으로 작용했다. 당시 종합학원 학생 수는 공교육 기관 학생 수와 동일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간, 위치, 인력에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므로 신설 종합학원의 등장은 대기업 자본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쉽게 확장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한창 성행하던 종합학원에서 경력을 쌓은 강사들은 그들의 독립된 사교육 시설을 운영하길 원했으나, 초기 자본과 각 과목별 교사 채용에 따른 부담감은 종합학원의 선택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기에, 이를 타파하고자 자신 전공과목을 전면으로 내세워 전문성을 강조한 단과학원을 선택했다. 사교육 공급자 입장에서 단과학원 장점은 최소 공간과 인력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하며, 사교육 수요자 입장에서의 장점은 강사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부터 증가된 단과학원들은 종합학원에 비해 수업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나, 종합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전개되는 시간표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과목별로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 유형을 찾아 선택과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과 방과 후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수요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단과학원은 점차 사교육 시장을 장악하며 현재 사교육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는 형태가 되었다.

2. 과외

과외는 한 명의 강사가 한 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며, 보통은 학생들 일정에 맞춰 학생 집으로 방문하거나 학생이 강사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이동하여 교육이 진행된다. 과외는 학생과 강사가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되어 라포 형성이 가장 용이하다. 수업 내용은 학부

모 요구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전반적 학습을 진행하거나, 부족한 교과 내용 혹은 선행학습을 제공하는 등 수업 내용이 결정된다.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강사가 매순간 확인 가능하므로 학습 부진아 혹은 학습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 과외를 진행하는 공급자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은 경우, 수업료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그룹 혹은 개인 과외로 수행된다. 과외 전문 강사도 교육청에 등록하여 활동하나,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과외도 다수 존재한다. 강사의 실력과 경력에 따라 수업료에 큰 차이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수요자가 가장 선호하는 사교육 유형이다.

3. 공부방

공부방은 1980년대 복지 차원에서 제공한 아동, 청소년 대상의 교육, 문화 공간을 의미했으나, 2000년 이후 주거 공간을 활용한 소그룹 방문 교습소로 형태가 변형했다. 돌봄이 요구되는 초등학생이 주된 학습 대상이었으나, 점차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그 대상 연령이 증가했다. 초기에는 한 명의 강사가 전 과목을 학습지를 통해 교육하는 형식에서 점차 주거공간에서 교육하는 단과 학원 형태로 변형되었다. 단과 학원과의 차이는 개인 과외교습자 신청을 한 후에 운영한다는 것과, 단일 과목이 아닌 강사 역량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외와의 차이점은 강사가 학생들 집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학원으로 방문하듯 정해진 공간으로 방문하여 학습하는 형식이지만, 요즘은 과외도 공부방처럼 지정된 공간으로 학생들이 이동하여 수업하는 곳도 증가하여 그 경계가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공부방 강사의 주거공간을 공부방으로 운영하지만, 학습자 주거지로 방문하거나, 유해한 시설이 없는 별도 장소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공부방 강사는 신고자 1인만 가능하나, 교육청 신고 후 친족, 부부에 한해 공동 교습이 가능하다. 교습

과목 수에 관한 제한은 없다. 강의실 규모는 제한이 없어 학원처럼 운영이 가능하나, 강의시간당 최대 수용인원은 9명을 넘어서는 안된다.

4. 학습지

학습지는 방문강사가 속한 회사의 학습지를 교재로 활용해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생 수준에 맞는 단계의 문제와 단원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학습지 강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수업시간은 30분 이내이다. 월간 비용이 저렴하여, 2-3개의 학습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교과에 국한되지 않으며, 폭 넓은 교육형태를 보인다. 학습지 강사들은 머무는 시간이 짧아서 학습지 문제를 풀고 점검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전개된다.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주 대상이다.

5. 온라인 학습

온라인 학습은 온라인 환경이 갖춰진 각각의 장소에서 학생들이 접속해서 교육청 혹은 기업형 대형 학원에서 현장 수업 혹은 기획된 수업을 촬영하여 만든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온라인 학습은 단방향 수업이므로, 학생은 강사의 얼굴을 알지만, 강사는 학생들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강사가 촬영한 수업을 시간 구매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력이 검증된 강사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화된 그룹을 겨냥해 해당 단원의 수업이 단방향으로 전개됨으로 수준별 학습이 불가능하고, 특히 대면 교육 장점인 관리기능이 저하된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온라인 학습을 할 경우, 학업 성취도가 현저히 낮은 단점이 있다(염복순, 2010).

한편, 통계청(2019) 자료에 따르면, 성적 구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평균적으로 이러한 사교육비와 그에 따른 참여율이 높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 성적 구간별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출처: 통계청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특히,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관건이 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 외적 도움을 받는 사교육 집단과 받지 못하는 집단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러한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보고자 하는데, 즉, 과연 높은 가구소득이 높은 성적을 창출함에 있어 사교육비의 역할은 과연 유의하며, 기타 다른 조건들에 비해 그 영향력은 어떤지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지금까지 검증되지 못했던 성적 창출에 있어 사교육비의 상대적 역할 정도를 규명함으로써 지금까지 정립되지 못했던 학업성취도의 영향력을 어느정도 명확하게 추정해 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4절 부모 관심

인간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지를 얻는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결속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가치있는 존재로 믿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정체성을 강화 및 유지하는 다차원적 특성이 있다(강경숙 외, 2002). 본 연구에서 부모의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한 구성요인으로서 지지원에 따른 부모와 지지형태에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진다.

우선 부모관심, 즉 부모의 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면, 1970년대 중반에 사회과학 연구자들에 따라 시작되어 작업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경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되었고, 다양한 학자들 견해에 따라 사회적지지 개념의 형태는 달리 하고 있다(김희자, 2017).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지지 개념적 정의를 보면, 이선아(2014)는 개인이 물질적, 정신적 안정 혹은 향상을 위해 사회적 관계로부터 여러 도움과 자원을 제공받는 것이라고 했고, 김지하(2021)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개인이 의지할 수 있으며, 개인으로 하여금 그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가치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람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했다.

Thoits(1982)는 모든 사람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욕구를 충족하는데, 사회적 지지를 통해 애정, 소속, 인정, 안정에 관한 개인 욕구가 주변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충족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자신이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애정과 존경을 받는다고 경험하는 정서적 지지와 구성원으로 그들이 속한 곳에서 적응과 이해를 돕는 정보, 조언 등의 인지적지지, 현실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역, 재화에 해당하는 물질적 지지로 유형화한다.

개인의 주변에서 관심과 사랑은 환경적 요인으로서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장과 발달을 한다. 따라서, 부모의 관심과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적 근거로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으로서 설명되며,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지지욕구를 반영해주는 자신과 부모 간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김재명(2015)은 이러한 부모의 관심에 해당하는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성적을 결정한다고 피력했다. 조사결과, 교과학습에 충실한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와의 관계가 매우 좋으며, 학생의 꿈과 진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독서습관과 인내력을 길러 주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며 대화에 적극 나섰다. 교육에 관심이 많았으며 성적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 추이에 더 깊게 관심을 가지며 학생과 소통하고자 했다. 또한, 한국일보(2015)의 "학업 성적에 한국은 부모의 관심이, 미국은 재력이 더 크게 좌우"라는 기사에서,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부모의 관심과 재력 중 자녀 학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미국이나 영국이 재력이라면 한국, 일본은 단연 관심이 압도적임을 규명했다. WB가 보고한 '교육 불평등의 국가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58개국 청소년의 수학, 과학 성적 등과 교육적 환경 간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관심과 연관된 요인이 학력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표 2-4> 국가별 수학 성적 격차 요인

구분	부모존재	최종학력	재력	도시거주여부
한국	26.5	26.3	28.9	12.2
일본	11.5	38.1	31.9	13.3
미국	17.2	19.0	48.1	11.9
영국	16.9	10.2	50.4	6.6
프랑스	8.8	17.1	56.4	7.8
독일	4.3	18.2	58.5	11.9
스웨덴	12.4	10.4	44.5	7.2

출처: 한국일보. (2015). "학업 성적에 한국은 부모의 관심이, 미국은 재력이 더 크게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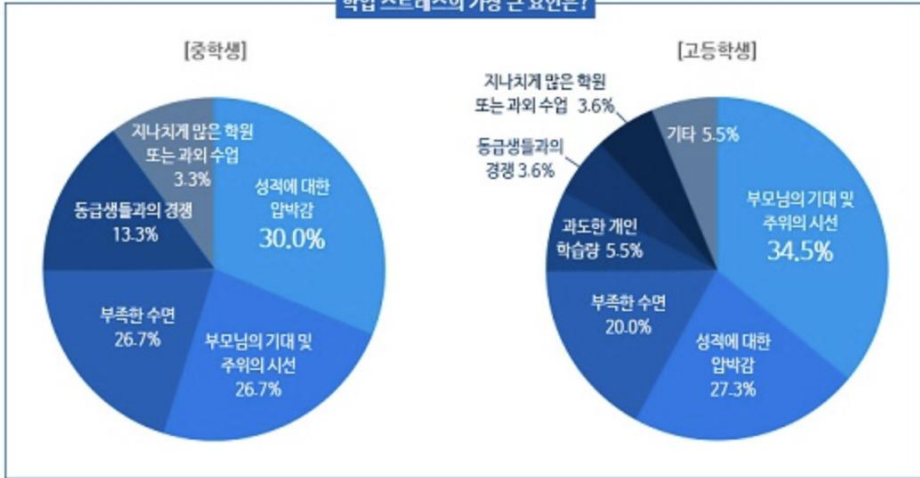
또한, 소득이 자녀의 학업 포부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통제변수(성별, 형제 수, 학력, 부모의 기대(지지), 자산 등)를 상정했는데, 부모의 기대가 가장 유의한 결과값을 도출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강민수(2016)에 따르면, 중고생 중 10명 중 8명이 부모의 시선과 관심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규명했다. 중고생 81%가 겪는 학업 스트레스 중 중학생은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고, 고등학생은 ‘부모님이나 주위의 기대, 시선’ 으로 인해 고통 받는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국민 공부병 (학업과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실태조사)

엘리트학생복 / 응답 총 105명

학업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은?



[그림 2-3] 청소년의 학업과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 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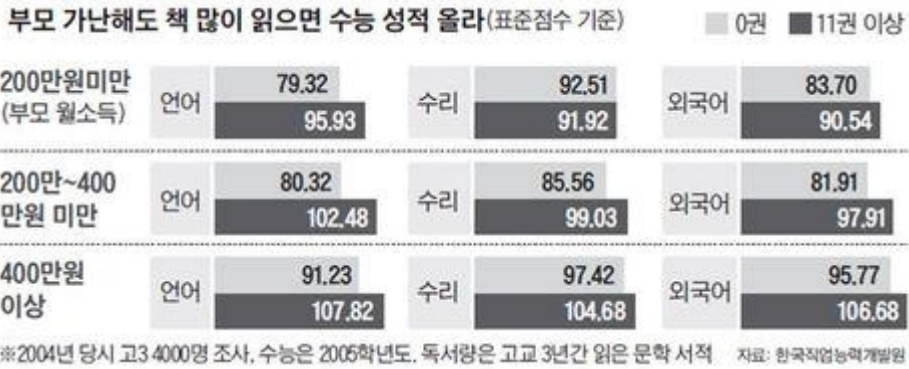
출처: 강민수. (2016). 중고생 10명 중 8명, 성적 압박·부모 시선으로 고통. 뉴스위치.

상기 논지를 볼 때, 부모의 관심은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으나, 그 영향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의견이 갈리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관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분별해 보고자 한다.

제5절 독서량

독서량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지역내 일(2017)은 독서를 많이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고, 한우리 독서신문(2020)은 문학 서적이든 교양서적이든 책을 11권 이상 읽은 학생이 1권도 읽지 않은 학생보다 언어영역에서 2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음을 강조하면서 독서량의 성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시사했다. 하지만, 성적이 독서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조사한 4,000명의 가정환경, 등학교 시간, 담임의 성향, 학급 규모 등 수많은 기타 요소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 후 독서량만 다르게 하여 몇 년을 추적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음을 제시하여 독서량이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답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박세미(2016)는 독서가 부모가 잘살든, 그렇지 않든, 부모의 학력이 높든, 낮든, 책을 많이 읽는다면 학업 성취도를 올릴 수 있는 절대적 방법임을 피력했다. 직능원이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들(현재 만 27세)을 추적, 조사한 결과, 독서가 수능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학력과 소득격차 영향을 뛰어 넘었다. 수능성적과 독서량이 고소득 영향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독서량과 수능성적 간 관계를 부모 학력과 소득 수준으로 쪼개어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독서는 계층을 관통하는 힘이자 계층 상승을 유도하는 사다리 역할을 함이 입증되었다. 저소득 가정에서 독서량이 많은 학생들 경우, 부모 소득이 월 200-400만원이면서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학생들보다 수능 등급이 언어는 1.71등급, 수학은 0.96등급, 영어는 1.14등급 더 높음을 확인했다. 또한 표준점수로 추정해보면 적게는 10점에서 많게는 20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고졸 이하면서 문학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의 언어 수능등급은 대졸 어머니 밑에서 책을 읽지 않은 학생들보다 1.57등급, 표준점수로는 약 18점 정도 높았다.



[그림 2-4] 독서의 상대적 영향력

출처: 2021.06.24. 독서의 힘... 부모의 학력·소득 격차도 극복. 조선일보 (2016).를 참고함.

다독, 즉 높은 독서량에 관한 개념을 고찰해 보면, 다독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Harold Palmer(1964)는 ‘Extensive’ 라고 표현하여 책을 연달아 빠르게 읽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Krashen(2004)은 다독을 즐거운 독서 (pleasure reading)’ 혹은 ‘자발적인 독서(voluntary reading)’ 이라고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문에 대한 능동적 태도, 학습에 대한 효능감이 증대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과 효과는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악영향에 있어 그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Maley, 2008).

제6절 자습시간

연구자들은 시간의 배분과 활용과 관련하여 청소년기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다. 청소년기가 시간 사용과 관리능력을 개발함에 있어 대단히 핵심적인 시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Fraisee et al.(1963) 등 일부 인지심리학자는 아동기까지는 주어진 시간을 적극 관리할 충분한 역량이 없음을 강조하며, Medirich(1982) 등은 아동기에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성인의 영향력이 지대하므로 개인적 특성이 시간 활용에 큰 영향을 안미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학교 안팎에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며, 이에 따라 시간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증가하고, 그 만큼 시간 배분 양상도 달라진다. 특히, 학령기 청소년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된 최우선의 과업이 학업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학업수행에 얼마큼 시간을 할애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고찰은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습시간은 학생이 학습을 위해 투자한 시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학습 정도는 학습에 사용한 시간과 함수관계를 구성한다는 Carroll(1963)의 학교 학습모형과, 과정-산출 모형을 통해 Coleman 보고서의 결론을 반박하려는 논의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김형원(2017)에 따르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등학교 시기에 성적을 향상시킨 학생들의 성공 비결에 관하여, 내신 성적 1.3등급 이상을 올린 학생 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성적을 올린 학생들의 가장 큰 특성은 자습에 있었다. 이들은 자율학습시간이 보통 학생보다 길고 자신만의 계획이 확고하였다. 특히 내신 성적을 2등급 이상 올린 3%의 학생들은 이러한 특성이 더 명확했다. 2등급 이상 오른 학생들 중 3-4시간 자습하는 학생은 전체의 24.2%, 4-5시간은 22.1% 그리고 5시간 이상 자습하는 학생이 30% 이상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자습시간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고,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황보연(2020)에 따르면, 소득 하위 25% 가구에서 학업성취도가 상위 25%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은 100명 중 3명에 그치는데, 사교육, 즉 의존적 학습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과목일수록 이러한 학업탄력성을 지닌 학생들 비중은 감소하여, 이들 3명의 학생들의 성적 비결이 자습에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구소득이 낮아서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습시간은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여 학업 성취도를 다소 증진할 것을 가정한다.

제7절 선행연구 분석과 본 연구의 차별성

이은우(2006)는 중학생 가정의 소득 및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연구결과, 학생들의 성적은 사교육비와 가족 배경(부모의 소득, 학력, 그리고 직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교육이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병년(2010)은 가구소득이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부모자녀관계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연구결과, 소득수준이 낮아지더라도 부모 자녀의 관계가 향상되거나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부모의 관심이 높다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학업성취를 높여줄 수 있음이 규명되었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 부모의 관심이 높다면 그 부적(-) 영향력을 다소 완화시키는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정혜지, 주은선(2017)은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교 밖 학업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양육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했다. 연구결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교육(학원/과외)시간과 혼자공부시간이 모두 늘어난다. 둘째, 부모양육방식 중 `감독`은 가구소득이 혼자공부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서 유의미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구소득과 부모의 관심 그리고 자습시간 간 긴밀한 관계성을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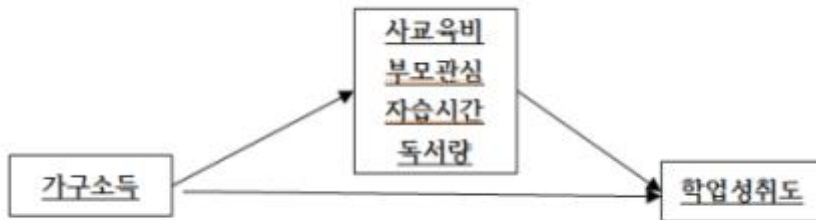
홍아름(2021)은 위계적 선행모형을 이용한 초등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관련변인 탐색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학생 수준 변인 중 수업태도, 학습시간, 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 독서시간, 온라인 강의 듣기, 목표의식, 창의성, 자기통제력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담임교사 변인 중, 교육과정 관련 연수, 숙제에 대한 피드백 중 성적산출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수행평가에 대한 피드백 중 개별 학생에게 서면으로 간단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정적인 상

관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여,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증대하는 것은 학생의 역량뿐만 아니라, 담임의 역할도 상당부분 차지함을 시사했다.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을 성취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2013)의 ‘한국교육중단연구2013 6차년도 조사 학생 설문지’ 연구에 따라, 가구소득,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 학업성취도를 구성하였고, 이러한 변수들 간 관계성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2절 가설설정

1. 가구소득이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

백학영, 안서연(2012)은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현저하게 중산층, 상층가구에 비해 적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강이(2002)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그리고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은 더욱 적극적이고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아짐을 확인했다. 한편, 정해련(2016)은 가구소득에 따른 자기보호아동의 방과 후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분석했는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학습중심형 방과 후 생활패턴을 보여 자습시간이 증대함을 간접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오해문(2020)은 중국 중고등학생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자본과 교육포부 간 관계를 분석했는데, 연구결과, 고소득과 저소득 가정에 따라 문화적 자본 차이가 현저함이 규명되어 소득수준과 독서량 간 긴밀한 연관성을 보고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설정을 하였다.

H-1. 가구소득은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가구소득은 사교육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가구소득은 부모관심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가구소득은 자습시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가구소득은 독서량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박현정 외(2008)는 사교육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지속적인 사교육 집단 성취도가 가장 높았고, 간헐적 사교육 집단이 그 다음이며, 비사교육 집단 성취도가 가장 저조함을 확인했다. 또한, 문은식, 김충희(2003)는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 중학생의 학업동기, 학업성취도 간 관계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제시했다. 한편, 최정임, 최정숙(2012)은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이 대학생의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자습시간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학습계획, 시간관리전략이 높은 집단은 학업성취도가 더 우수함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대근(2017)은 독서역할모델 및 독서유효성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독서가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 응답 결과 학업성취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 비중이 명확하게 더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설정이 가능하다.

H-2.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사교육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부모관심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자습시간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독서량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김광혁(2019)은 가구소득이 학업성취, 우울불안,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구소득 영향은 소득 수준에 따라 명확하게 다르게 나타나 이른바 소득의 비선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설정이 가능하다.

H-3. 가구소득은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의 매개효과

이은우(2006)는 중학생 가정의 소득 및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연구결과, 소득계층에 따라, 자녀들의 성적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이 영향관계에서 사교육은 의미있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또한, 이선애(2009)는 소득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가족자원이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는데, 가족소득에 해당하는 가족자원과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함을 확인했다. 한편, 정상수(2014)는 가족소득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가족배경과 학습시간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일부 국가에서는 자녀의 학습시간이 증대하였고, 이에 따라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설정이 가능하다.

H-4.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H-4-1.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교육비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H-4-2.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관심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H-4-3.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습시간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H-4-4.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독서량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독립변수인 가구소득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2013)은 급여, 상여금, 재산소득, 생활보조금 등을 포함한 가정의 총 월평균 소득이라고 했다. 가구소득의 측정은 '가정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급여, 상여금, 재산소득, 생활보조금 등 포함)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부모의 응답을 측정하였다. 또한, 매개변수인 사교육비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2013)은 자녀를 위해 월평균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총액이라고 했다. 이의 측정은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얼마입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부모관심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2013)은 부모가 나의 학교생활, 성적 등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라고 했다. 이의 측정은 '내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있게 물어보신다' 와 '부모님은 나의 성적관리에 신경 쓰신다.' 질문에 대한 답을 평균값으로 합산하여 측정하였고, 자습시간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2013)은 학교와 학원 혹은 과외의 수업과 숙제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하루 평균 시간이라고 했다. 이의 측정은 '학교와 학원(과외)의 수업 및 숙제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독서량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2013)은 한달간 교과서, 참고서를 제외한 책을 읽는 총 권수라고 개념화했고 이의 측정은 '여러분은 보통 한 달 동안 책을 몇 권 읽습니까? (교과서, 참고서 제외)'로 측정하였고,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는 학생의 교과별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 점수이며 2018년 전국연합학력 실시한 평가에 대한 성적을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표 3-1> 측정도구

변수	변수명	질문문항
독립변수	가구소득	'가정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급여, 상여금, 재산소득, 생활보조금 등 포함)은 얼마입니까?'
매개변수	사교육비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얼마입니까?'
	부모 관심	'내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있게 물어보신다.' '부모님은 나의 성적관리에 신경 쓰신다.'
	자습시간	'학교와 학원(과외)의 수업 및 숙제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
	독서량	'여러분은 보통 한 달 동안 책을 몇 권 읽습니까? (교과서, 참고서 제외)'
종속변수	학업성취도	교과별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 점수이며 2018년 전국연합학력 실시한 평가에 대한 성적

제4절 연구 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할 연구 대상 자료는 한국교육중단연구2013(KELS: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이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가 1단계 조사 기간이고 1단계 조사 기간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중단연구를 하며 주로 초·중등학교 효과, 사교육 및 선행학습효과, 각종 초·중등 정책효과를 추적한다.

2단계 조사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서 만 28세까지를 추적 조사하여 대학진학 효과, 대학 및 대학교육 효과, 초기 직업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 교육 및 각종 교육 정책의 변화 과정, 효과 비교분석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가장 최신 데이터 중 가장 최신 자료인 6차 조사 자료 2018년 고등학교 1학년 자료이다. 6차 조사의 조사대상은 표본 학생, 표본 학생의 학부모, 표본 학생의 담임교사 혹은 연구 협력 교사이다

한국교육중단연구2013의 표본 설계는 조사를 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였고 특수지역, 분교, 신설 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5,509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5학년 학생 524,117명으로부터 242개교의 8,070명이 대상 학생으로 추출되었고, 그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7,324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함 표집 설계 및 표집 방법은 층화군집무선추출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다. 표집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학교, 학생, 교사의 모집단 및 표본 크기

구분	학교 수			5학년 학생 수						교사수 모집단	
	모집단	표집	비율(%)	모집단	목표 표집	비율(%)	실제 표집	비율(%)			
시도	서울	특별시	591	36	6.09	88,345	1,440	1.63	1,374	1.56	29,646
	부산	광역시	280	11	3.93	30,662	440	1.44	419	1.37	10,279
		읍·면지역	14	0	0	846	0	0	0	0.00	341
	대구	광역시	190	10	5.26	24,879	400	1.61	292	1.17	8,064
		읍·면지역	25	1	4	2,075	40	1.93	37	1.78	771
	인천	광역시	204	11	5.39	28,850	440	1.53	386	1.34	9,160
		읍·면지역	4	0	0	79	0	0	0	0.00	50
	광주	광역시	147	7	4.76	18,848	280	1.49	274	1.45	5,978
	대전	광역시	140	6	4.29	17,443	240	1.38	208	1.19	5,836
	울산	광역시	86	4	4.65	10,440	160	1.53	156	1.49	3,346
		읍·면지역	33	1	3.03	2,676	40	1.49	48	1.79	967
	경기	중소도시	777	38	4.89	113,043	1,486	1.31	1,292	1.14	33,234
		읍·면지역	340	11	3.24	22,367	321	1.44	306	1.37	7,993
	강원	중소도시	97	5	5.15	10,699	200	1.87	137	1.28	3,123
		읍·면지역	142	5	3.52	3,677	72	1.96	30	0.82	2,105
	충북	중소도시	90	4	4.44	11,496	160	1.39	140	1.22	3,522
		읍·면지역	158	6	3.8	5,515	108	1.96	105	1.90	2,670
	충남	중소도시	85	4	4.71	10,943	160	1.46	148	1.35	3,199
		읍·면지역	305	11	3.61	10,953	214	1.95	209	1.91	5,071
	전북	중소도시	157	7	4.46	16,465	248	1.51	197	1.20	4,911
읍·면지역		234	8	3.42	4,047	85	2.1	75	1.85	2,937	
전남	중소도시	103	5	4.85	10,885	200	1.84	188	1.73	3,321	
	읍·면지역	267	10	3.75	8,245	178	2.16	175	2.12	4,144	
경북	중소도시	144	6	4.17	16,871	240	1.42	242	1.43	4,951	
	읍·면지역	305	11	3.61	9,030	178	1.97	179	1.98	4,763	
경남	중소도시	184	9	4.89	24,918	360	1.44	351	1.41	7,753	
	읍·면지역	283	11	3.89	11,711	251	2.14	240	2.05	5,253	
제주	중소도시	47	2	4.26	5,790	80	1.38	67	1.16	1,690	
	읍·면지역	58	2	3.45	1,424	49	3.44	49	3.44	740	
	세종	중소도시	19	0	0	895	0	0	0	0.00	375
도시 규모	특별시	591	36	6.09	88,345	1,440	1.63	1,374	1.56	29,646	
	대도시(광역시)	1,066	49	4.60	132,017	1,960	1.48	1,735	1.31	43,038	
	중소도시	1,684	80	4.75	221,110	3,134	1.42	2,762	1.25	65,704	
	읍·면지역	2,168	77	3.55	82,645	1,536	1.86	1,453	1.76	37,805	
설립 유형	국·공립	5,434	232	4.27	517,345	7,670	1.48	6,957	1.34	174,356	
	사립	75	10	13.33	6,772	400	5.91	366	5.40	1,837	
총 계		5,509	242	4.39	524,117	8,070	1.54	7,324	1.40	176,193	

대한민국에서의 이루어지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각각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신 성적평가와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수준의 성취도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6차 조사 자료는 2018년 6월과 9월에 있었던 전국연합학력평가¹⁾에 대해 조사를 했다. 6월과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모두 응시하지 않음을 응답한 경우에만 2018년 3월 전국 학력평가 응시 여부와 과목별 등급²⁾을 조사하였다.

1) 전국의 학교 또는 특정 지역 내의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동시에 (일제히) 치르는 형태의 시험을 뜻한다.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표본의 특성

해당 연구의 조사대상인 한국교육중단연구2013 6차 패널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확인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조사대상인 학생들의 성별은 전체 응답자 7,324명 중에서 남학생이 3,623명 (49.47%), 여학생이 3,701명(50.53%)이었다. 남녀의 구성비가 거의 1:1의 비율에 가깝게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학생의 가구 구조 특성으로 부모님과 동거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전체 6,220가구 중에서 편부모 가정이거나 두 분 모두 같이 동거하지 않는 가정이 1,185명 (19.05%), 부모님 모두와 동거 하는 가정이 5,001명(80.4%), 무응답이 34명 (0.55%)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가구의 경제적 특성이자 본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월평균 가구소득을 파악해보았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단위로 소득등급을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결측 응답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 5,896명 중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41명(0.70%)이었으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314명(5.33%),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644명(10.92%),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926명(15.71%),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907명(15.38%),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1,113명(18.88%),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565명(9.58%), 7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438명(7.43%) 8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338명(5.73%), 9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139명(2.36%), 1,000만 원 이상 471명(7.99%)이었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표본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3,623	49.47
	여학생	3,701	50.53
	무응답	0	0
부모님 동거	편부모 ³⁾	1,185	19.05
	모두	5,001	80.4
	무응답	34	0.5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41	0.70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314	5.33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644	10.92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926	15.71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907	15.38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1,113	18.88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565	9.58
	7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438	7.43
	8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338	5.73
	9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139	2.36
	1,000만 원 이상	471	7.99

출처: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 6차 연도 조사 (2018)

3) 편부모 가정이거나 두 분 다 같이 동거 하지 않는 경우

제2절 주요 변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1. 6월 전국연합학력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표 4-2>는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첫째, 1단계 모형에서 통제변인 만을 투입하였을 경우 지역규모와 학업성취도는 역(-)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즉,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학업성취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47, p < .001$). 부모와 같이 사는 가정의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는 정(+)의 상관을 나타냈다($B = .418, p < .001$). 첫 번째 모형에서 변수들이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R^2 기준으로 .018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p < .001$).

두 번째 모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월가구소득과 학업성취도는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월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 .187, p < .001$). 두 번째 모형에서 변수들이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R^2 기준으로 .075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으며, 첫 번째 모형에 비해서 .058 정도 설명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세 번째 모형에서는 독서량, 자습시간, 부모관심수준, 사교육비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와 함께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습시간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B = .392, p < .001$), 부모관심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역시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냈다($B = .224, P < .001$). 사교육비 역시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B = .310, p < .001$). 세 번째 모형에서 변수들이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R^2 기준으로 .0206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으며, 첫 번째 모형에 비해서 .131 정도로 설명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4-2>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B	t	B	t	B	t
(상수)	5.922	36.996***	4.946	28.999***	2.841	12.472***
지역규모	-0.247	-5.363***	-0.226	-5.058***	-0.173	-4.125***
성별	-0.109	-1.750	-0.138	-2.269*	-0.185	-3.278**
부모동거	0.418	4.697***	0.137	1.546	0.126	1.524
월가구소득			0.187	13.845***	0.124	9.283***
독서량					-0.008	-0.158
자습시간					0.392	17.996***
부모관심					0.224	5.815***
사교육비					0.310	7.627***
F	18.610***		62.745***		99.701***	
R ²	0.018		0.075		0.206	
R ² 변화량	0.018		0.058***		0.131***	

*** $p < .001$, ** $p < .01$, * $p < .05$

2. 9월 전국연합학력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표 4-3>은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첫째, 1단계 모형에서 통제변인 만을 투입하였을 경우를 나타낸다. 지역 규모가 클수록 학업성취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34$, $p < .001$). 여성인 경우 남성의 경우보다 학업성취도 9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 = -.196$, $p < .01$).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525$, $p < .001$). 첫 번째 모형에서 변수들이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R² 기준으로 .030 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 (p<.001).

둘째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월가구 소득만을 포함시켰다. 월가구소득과 학업성취도는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월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194, p<.001). 두 번째 모형에서 변수들이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R² 기준으로 .091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으며, 첫 번째 모형에 비해서 .061 정도 설명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세 번째 모형에서는 독서량, 자습시간, 부모관심수준, 사교육비를 독립 변수와 통제변수와 함께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습시간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B=.408, p<.001), 부모관심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역시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냈다(B= .231, p<.001). 사교육비 역시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B=.331, p<.001). 세 번째 모형에서 변수들이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R² 기준으로 .0225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으며, 첫 번째 모형에 비해서 .134 정도로 설명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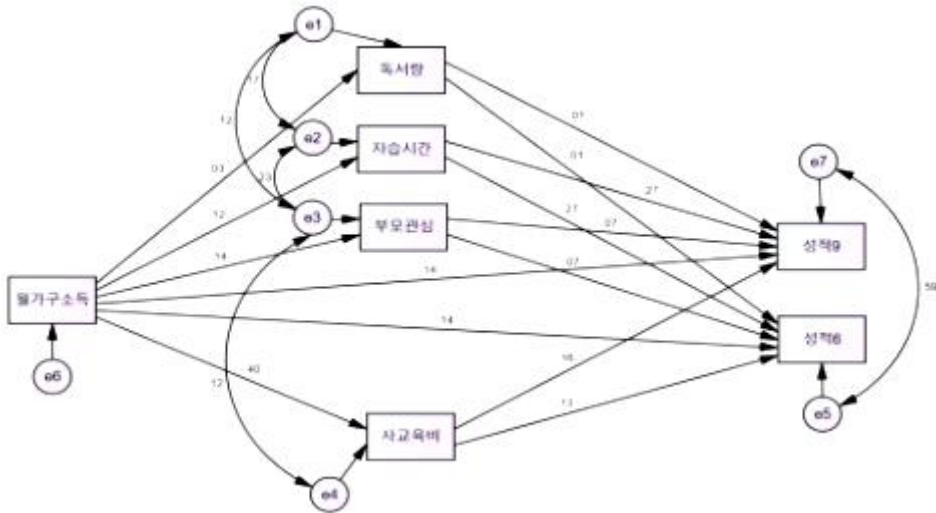
<표 4-3>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B	t	B	t	B	t
(상수)	5.778	47.405***	4.651	32.686***	2.400	11.173***
지역규모	-0.234	-7.058***	-0.162	-4.994***	-0.098	-3.116**
성별	-0.196	-2.995**	-0.223	-3.515***	-0.249	-4.221***
부모동거	0.525	5.586***	0.216	2.309*	0.197	2.276*
월가구소득			0.194	14.179***	0.124	9.134***
독서량					-0.001	-0.020
자습시간					0.408	18.110***
부모관심					0.231	5.783***
사교육비					0.331	8.184***
F	30.989***		75.054***		108.466***	
R2	0.030		0.091		0.225	
R2 변화량	0.030		0.061***		0.134***	

***P<.001, **P<.01, *P<.05

제3절 경로모형 분석

1. 모형 적합도 분석



[그림 4-1] 경로 분석 결과

<표 4-4> 구조방정식 모형적합도

CMIN	NPAR	DF	p	TLI	CFI	RMSEA	LO 90	HI 90
39.004	33	2	0.000	0.953	0.995	0.05	0.037	0.065

<표 4-4>를 보면, 경로 모형의 카이제곱값은 39.004로 나타났고, 추정모수는 33개이며, df는 2수준에서 해당 카이제곱값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다만, 카이제곱은 표본수에 민감하므로, 다른 적합도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추가로 RMSEA 값은 .05로 MacCallum et al(1996)이 제시한 .08보다 낮은 값을 보이므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CFI는 .995, TLI는 .953로 나타났다. Hu 와 Bentler(1999)의 기준에 따라 모두 .95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초기 사용한

모형은 비교적 해당 모형은 데이터를 적합한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는 주요 경로에 대한 분석표이다.

월 가구 소득은 자습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beta = .117, p < .001$). 월 가구 소득이 늘어날수록 학습자들의 자습 시간도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냈다. 월 가구 소득은 또한 부모관심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eta = .137, p < .001$). 월가구소득은 사교육비와도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beta = .399, p < .001$). 월 가구 소득은 독서량에도 정(+)적 관계를 보였다($\beta = .027, p < .05$).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자습시간이 있었다. 자습시간은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beta = .269, p < .001$; $\beta = .265, p < .001$). 부모의 관심도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beta = .073, p < .001$; $\beta = .07, p < .001$). 사교육비 요인도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1, p < .001$; $\beta = .165, p < .001$). 월가구 소득도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beta = .143, p < .001$; $\beta = .141, p < .001$).

그러나 독서량의 경우 학업성취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beta = -.009, p > .05$; $\beta = .008, p > .05$).

<표 4-5> 주요 경로 분석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C.R.
월가구소득	-> 자습시간	0.117	0.065	0.006	10.116***
월가구소득	-> 부모관심	0.137	0.044	0.004	11.854***
월가구소득	-> 사교육비	0.399	0.134	0.004	37.252***
월가구소득	-> 독서량	0.027	0.007	0.003	2.281*
독서량	-> 학업성취도6	-0.009	-0.027	0.033	-0.832
자습시간	-> 학업성취도6	0.269	0.358	0.015	23.912***
부모관심	-> 학업성취도6	0.073	0.167	0.026	6.502***
사교육비	-> 학업성취도6	0.131	0.288	0.026	11.074***
월가구소득	-> 학업성취도6	0.143	0.106	0.009	12.125***
독서량	-> 학업성취도9	0.008	0.026	0.033	0.77
자습시간	-> 학업성취도9	0.265	0.363	0.015	23.812***
부모관심	-> 학업성취도9	0.07	0.164	0.026	6.263***
월가구소득	-> 학업성취도9	0.141	0.106	0.009	12.027***
사교육비	-> 학업성취도9	0.165	0.372	0.026	14.07***

***p<.001, **p<.01, *p<.05

- 학업성취도 9: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 학업성취도 6: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 총 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

아래 <표 4-6>은 독립변인인 월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총 효과를 분해한 표이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도출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월가구소득은 학업성취도에 모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시에,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서 월가구소득은 학업성취도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총효과 분해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월가구소득 → 학업성취도9	0.247 [.228-.265]	0.141 [.120-.159]	0.107 [.097-.117]
월가구소득 → 학업성취도6	0.236 [.218-.254]	0.143 [.123-.161]	0.093 [.084-.103]

- 학업성취도 9: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 학업성취도 6: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아래 <표 4-7>은 월가구소득이 매개변인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매개변인 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자습시간은 월가구소득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2, p<.001$; $\beta=.031, p<.001$). 즉, 월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의 학생은 자습시간 역시 많이 확보가 되며 이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관심은 월가구소득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0, p<.001$; $\beta=.010, p<.001$). 즉, 월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도 높아지며 이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교육비는 월가구소득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2, p<.001$; $\beta=.066, p<.001$). 즉,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높아지며 이는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독서량은 월가구소득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0, p>.05$; $\beta=.001, p>.05$).

<표 4-7> 간접효과 분석

간접경로	표준화	비표준화	하한	상한
월가구소득 → 자습시간 → 학업성취도6	0.032***	0.023	0.019	0.028
월가구소득 → 부모관심 → 학업성취도6	0.010***	0.007	0.005	0.010
월가구소득 → 사교육비 → 학업성취도6	0.052***	0.039	0.032	0.045
월가구소득 → 독서량 → 학업성취도6	0.000	0.000	-0.001	0.000
월가구소득 → 자습시간 → 학업성취도9	0.031***	0.024	0.020	0.028
월가구소득 → 부모관심 → 학업성취도9	0.010***	0.007	0.005	0.010
월가구소득 → 사교육비 → 학업성취도9	0.066***	0.050	0.044	0.057
월가구소득 → 독서량 → 학업성취도9	0.000	0.000	0.000	0.001

*** $P<.001$, ** $P<.01$, * $P<.05$

<표 4-8> 가설검증결과 요약

가설	가설내용	채택 여부
H-1	가구소득은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가구소득은 사교육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2.	가구소득은 부모관심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3.	가구소득은 자습시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4.	가구소득은 독서량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사교육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2.	부모관심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3.	자습시간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4.	독서량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	가구소득은 학업성취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H-4-1.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교육비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H-4-2.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관심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H-4-3.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습시간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H-4-4.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독서량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기각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교육비는 물론 이러한 긍정적 영향력을 갖는 학생의 학습 역량에 해당하는 자습시간, 독서량과 부모의 관심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규명하고자,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학생대상으로 2013-2018까지 설문작업을 진행하였고, 해당 연구에서는 가장 최신회차 조사인 6차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총 6,264부를 수거하여 층화군집무선추출법 방법에 따라 통계처리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월가구소득은 독서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자습시간, 부모관심,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자습시간, 부모의 관심, 사교육비는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독서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습시간, 부모관심, 사교육비는 가구소득과 학업성취도 관계를 매개했으나, 독서량은 기각되었다. 넷째,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2절 연구 시사점

연구가설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은 독서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자습시간, 부모 관심,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의 학습 역량에 핵심이 되는 자습시간이 더 증대하고, 부모의 관심도 더 강화되며 사교육비도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역으로 말하면, 소득이 높지 못하면 자습시간이 그만큼 감소하고, 부모관심이 저조하며 사교육비도 낮아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간 배분과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자습시간을 능동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동기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부모 대상 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 부모의 관심이 학생 성적에 어떠한 중요성과 영향력을 갖는지 갖가지 설득력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교육비가 저조하여 유리하지 못한 학습적 입지에 섬에 따라, 저소득층 대상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각 과목별 공개강좌를 제공하거나, 이들에게 맞춤형 학습 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하여 이들 성적에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능률적인지 제시하여, 이들의 자립성을 구축해 준다면 차후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학습 탄력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서량은 가구소득이 높아도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저소득층이라도 독서량은 다소 많을 수 있음을 간접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대상 청소년들에게 다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습전략과 관련된 유용한 서적을 준비하여 이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회복지차원의 지원을 한다면 그들이 효율적인 학습전략과 이를 추진하는데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습시간, 부모의 관심, 사교육비는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독서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교육비는 물론 부모가 청소년들의 학습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전개할 때,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더하여 학생들의 자습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소득층 대상 자습시간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사회복지차원에서 지원하고, 이에 더하여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각 학생들의 특성과 성적 정도에 따라 맞춤형된 개인별 전략을 수립하여 제공해 준다면 그들이 자습시간을 확보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부모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이러한 자습실에서 전개되는 학습전개상황, 성과 등을 부모들에게 실시간 전송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면 학부모가 청소년들에게 더 큰 심적, 정서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독서량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 등은 청소년 대상 Critical reading, 즉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학술적 독서 방향을 제시하여 단지 재미로 독서하는 것이 아닌, 비판적 사고 증진을 통한 논리력을 증대하여 학업성취도로 연결될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한 예로, 학생들에게 지정도서를 제공하고, 특정 문장별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질문문항들을 문서화하여 제시한 뒤, 이 과정을 열심히 학습하는 학생들 대상 특정 보상을 제공(학습 차원의 보상들)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습시간, 부모관심, 사교육비는 가구소득과 학업성취도 관계를 매개했으나, 독서량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 있어, 사교육비가 높고, 자습시간이 길며, 부모관심이 높다면 학업성취도는 다소 호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 학생들도 그들의 학업 성취도가 증대함에 있어, 사교육비, 자습시간, 부모관심이 더 해지면 그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이 시사된다. 따라서, 이들 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계층 자녀들 대상 자습시간을 증대하고, 부모관심

을 높이며, 사교육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우선, 사회복지 분야는 이에 관하여 저소득층 자녀들 대상 레벨별 학습 전략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즉, 각 지역 학생들을 레벨별로 구분하고, 이들이 자습시간을 통해 효과적이고 알찬 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각 레벨별 멘토가 관리하는 방안이다. 즉, 수업 내용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 레벨별 효과적인 학습전략구축에 관한 정책서 형식의 가이드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한다면 각 사회복지분야가 해당 작업을 더 원활하게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과정을 부모가 자유롭게 참관할 기회를 제공하고 각 학생들의 학습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 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면 부모의 관심도 더욱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넷째, 가구소득은 학업성취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가구의 경제적 역량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그만큼 학업 성취도의 긍정적 창출에 불리한 입지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상기에서 제시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들의 활용 극대화 방안을 사회복지분야는 모색할 과제가 있다. 즉, 자습시간, 부모의 관심 이 두 가지 변수에 주목하여 이들 변수들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성적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상기에서 제시한 방안들 외에도 더욱 효과적이고 새로운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대중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해외의 사례들을 심층 분석하여 국내 사정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자습시간, 부모의 관심이라는 두 변수로 사교육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전략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자습시간을 억지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 즐기며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한 예로, 이를 위하여 실시간 피드백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1시간 단위로 특정 단원을 학습하게 하고, 이에 관한 미니 테스트를 바로 수행하여 그들의 성적이 항상

되고 있음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게 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를 연장하여 하루 단위의 테스트, 일주일 단위의 테스트, 한 달 단위의 테스트로 각 시험이 누적되면서 수행되도록 계획한다면 학생들은 해당 테스트에 대한 부담 없이 학습사안을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다.

제3절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심, 자습시간이 유의한 매개역할을 함을 검증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가구소득에 따른 학업격차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구소득이 저조한 학생이라도 부모 관심, 자습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학업성취도를 증진하여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집단을 학년별, 지역별, 성별로 구분하여 변수 간 영향력을 측정하진 못하였다. 차후 관련 연구는 이를 감안하여 특성별로 청소년 집단을 구분하여 본 연구를 전개한다면 보다 개별적이고 각 집단에 더욱 적합한 실효성 높은 시사점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력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저소득층에 주목하여 그 격차를 완화하는 접근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의 공평성 입장에서 고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전략과 계획도 필요함이 자명하다. 따라서, 차후 관련 연구는 이를 감안하여 저소득, 고소득 각각에 따른 개별적인 전략을 모두 제시한다면 보다 형평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목적은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 환경적 변수와 학생 역량 차원의 변수 효과를 함께 검증함에 의미를 두었는데, 환경적 변수, 학생 역량 차원 변수는 본 연구가 상정한 사교육, 부모관심 그리고 독서량, 자습시간보다 더 많이 있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차후 관련 연구는 해당 변수들을 각각 선정함에 있어 대표적 변수로 도출되는 타당성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변수들을 설정한다면 그 연구 결과는 더욱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경숙.정미영.김미영.장수현. “지지개념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3)** :566-573, 2002.
- 강민수. “중고생 10명 중 8명, 성적 압박·부모 시선으로 고통.” 뉴스위치, 2016.
- 강상진.전민정.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간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차이: 자아존중감이 가계소득 및 성적수준과 갖는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4**:195-221, 2006.
- 경기도교육청. 통계로 보는 교육정책, 2015.
- 김경식. “과외수업 실태 조사.” 『교육학논총』 **24(2)**:277-297, 2003.
- 김경태. "신·구도시간 교육격차, 도·농간 차이보다 크다". 연합뉴스. 2015.
- 김광혁. “가구소득이 학업성취, 우울불안,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아동청소년 대상 패널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5**:1-27, 2019.
- 김병규. “中學生들의 課外學習이 學業成就에 미치는 影響.”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3.
- 김병년. “가구소득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극동사회복지저널』 **6**:7-27, 2010.
- 김수현. "가구소득·사교육비 높을수록 중·고교생 성적↑…대응책 필요". 연합뉴스, 2020.
- 김신일.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김양분.이재경.임현정.신혜숙. 『학력격차의 변화 추이 및 해소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0.

- 김인경. “모의 이른 경제활동 및 부모역할과 유아 발달의 관련성 분석.” 『Social Welfare Policy』 **44(1)**:5-46, 2017.
- 김재명.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학교준비도 및 사교육 참여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5.
- 김종순. “시군지역의 학습부진요인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8.
- 김청자. “과외수업이 학교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과외 수업의 필요성과 학습태도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8(2)**:61-89, 2001.
- 김형원. “사교육 덜 받고 하루 3시간 넘게 혼자 공부.” 조선일보, 2017
- 김희자.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세한대학교 대학원, 2017.
- 류방란.김성식. “교육격차와 학교교육의 기능.” 『제32차 KEDI 교육정책포럼 교육격차, 무엇이 해법인가』 1-40, 2006.
- 문은식.김충희.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271-288, 2003.
- 박미나.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 박세미. “독서의 힘... 부모의 학력·소득 격차도 극복.” 조선일보, 2016.
- 박영신.김의철.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15(3)**:399-429. 2009.
- 박현정.상경아.강주연. “사교육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평가연구』 **21**:107-127, 2008.
- 백학영.안서연.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한국사회정책』 **19(3)**:9-47, 2012.
- 상경아.백순근. “고등학생의 수학 과외가 학업성취도, 태도,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18**:39-57, 2005.

- 손진희.김안국. “가정환경 자아개념 자기학습량과 학업성취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Asian Journal of Education)』 7, 2006.
- 신중호.신태섭.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교사기대, 가정환경요인 간의 관계 연구.” 『아동교육』 15(1):5-23, 2006.
- 신중호.진성조.김연제. “지각된 부모의 학업지원, 성취기대, 일상통제가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자기결정성 동기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4(1):121-137, 2010.
- 양애경. “감성지능, 학습동기, 학습자스트레스 및 자기주도학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7.
- 양평. “중학생의 교육매체 활용과 학습과정이 학업성취도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중단연구 6차년도 중학생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17.
- 염복순. “사교육비 지출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안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1.
- 오혜문. “중국 중고등학생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자본과 교육포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20.
- 이강이. “가정의 소득수준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65-76, 2002.
- 이도연. “코로나19 여파로 중학교선 학력 양극화·고등학교선 학력 저하.” 연합뉴스. 2021.
- 이선애. “가족자원 및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1):5-24, 2009.
- 이숙정.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2):235-253, 2011.
- 이은우. “중학생 가정의 소득 및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6):247-274, 2006.
- 이일동. “軍 NCS 도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육군 조리

- 부서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20.
- 이현준. “대학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입전형유형·사교육·대학생활만족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7.
- 이혜림.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의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 장예진.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현황.” 연합뉴스, 2021.
- 정대근. “독서역할모델 및 독서유효성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4)**:139-160, 2017.
- 정영애.김정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 그리고 학업성취와의 관계.” 『인문논총』 **9**:113-130, 2002.
- 정혜련. “가구소득에 따른 자기보호아동의 방과 후 생활시간 사용 양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 정혜지.주은선.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교 밖 학업시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3(1)**:81-116, 2017.
- 지역내일. “독서량과 국어성적은 왜 비례하지 않을까.”, 2017.
- 최정임.최정숙.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이 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교육과학연구』 **43(4)**:221-244, 2012.
-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 2017.
- 한국일보. "학업 성적에 한국은 부모의 관심이, 미국은 재력이 더 크게 좌우". 2015.
- 한우리독서신문. “독서를 하면 성적이 오를까.”, 2020.
- 홍아름. “위계적 선형 모형(HLM)을 이용한 초등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관련 변인 탐색.”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1.

<해외문헌>

- Carroll, J. "A model of school learning." *Teachers college record* **64(8)**:723-723, 1963.
- Cobb, S.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1976.
- Conger, R. D., Conger, K. J., & Martin, M. J.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685-704, 2010.
- Duncan, G. J., & Brooks-Gunn, J.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Russell Sage Foundation*, 1997.
- Fraser, C., Bellugi, U., & Brown, R. "Control of grammar in imitation,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2)**:121-135, 1963.
- Hu, L.T. and Bentler, P.M.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1999.
- MacCallum, R.C., Browne, M.W., and Sugawara, H., M.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130-49, 1996.
- Maley, A. "Extensive reading: Maid in waiting. English language learning materials: A critical review" 133-156, 2008.
- Medrich, E. A. *The serious business of growing up: A study of children's lives outside school*, Univ. of California Press, 1982.
- Thoits, P. A.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45-159, 1982.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1-55.

국문초록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 간 이동은 보편적이고 공평한 수단으로 한 때 간주되었으나, 교육기회 확장에 따른 사교육 열풍,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 급격히 상승한 대학 등록금 등에 현상으로 이제는 개인적 역량이 아닌 값비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모 경제력에 따라 교육적 성취도가 결정된다는 우려가 창출되고 있다. 김수현(2020)은 가구소득, 사교육비 등 경제적 차원이 학생들 성적과 진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우려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력이 약하다고 해도, 학생들의 학습역량, 부모의 관심에 따라 학업성취도는 호전될 수 있음이 함께 규명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교육비와 함께 긍정적 환경차원인 부모의 관심 그리고 학생들의 역량에 해당하는 자습시간, 독서량의 매개효과를 함께 검증하여 경제적 차원이 저조할 때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에서 이러한 긍정적 차원들이 그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여 유용한 사회복지차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월가구소득은 독서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자습시간, 부모관심,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습시간, 부모의 관심, 사교육비는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독서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습시간, 부모관심, 사교육비는 가구소득과 학업성취도 관계를 매개했으나, 독서량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정부와 사회복지분야가 이러한 자습시간, 부모관심 등에 역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이 두 변수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활용하면 현재 발생하는 교육격차 완화에 일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제어: 가구소득, 사교육비, 부모관심, 자습시간, 독서량.

<부록>

IRB No. 2018-18-07-N

유효기간 : 2018. 06. 27. ~ 2018. 12. 31.

학업성취도

- 다음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문지 표지 상단의 학생정보 라벨을 확인하시고 해당 학생에 대해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올해(2018년) 6월과 9월에 있었던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해 학생의 응시여부 및 과목별 등급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아래의 정보 수집에 대해, 「한국교육총단연구2013」 조사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에서 학생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문 1-1) 해당 학생은 **2018년 6월** 전국 학력평가에 응시하였습니까? ① 응시함 ② 응시안함

1-1-1) 과목별 등급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국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수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영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 1-2) 해당 학생은 **2018년 9월** 전국 학력평가에 응시하였습니까? ① 응시함 ② 응시안함

1-2-1) 과목별 등급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국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수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영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8 여러분은 보통 한 달 동안 책을 몇 권 읽습니까? (교과서, 참고서 제외)

- ㉠ 읽지 않음 ① 1권 ② 2권 ③ 3권
- ④ 4권 ⑤ 5권 ⑥ 6권 ⑦ 7권
- ⑧ 8권 ⑨ 9권 ⑩ 10권 이상

32 학교와 학원(과외)의 수업 및 숙제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 30분 이상의 경우만 1시간으로 계산하여 주십시오.
- 예사: "1시간 20분 → ① 1시간" / "1시간 40분 → ② 2시간"

- ① 전혀 없음 ① 1시간 ② 2시간 ③ 3시간
- ④ 4시간 ⑤ 5시간 ⑥ 6시간 이상

V. 부모-자녀 관계

45 다음은 부모님(또는 보호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동그라미표(○) 하여 주십시오.

부모님(또는 보호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게 물어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과사소한 것도 허투어 보면 칭찬하고 대답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취미나 여가활동을 나와 함께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 계획을 읽고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다	①	②	③	④	⑤
5) 사회문제에 대해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다	①	②	③	④	⑤

46 다음은 나의 공부에 대한 부모님(또는 보호자)의 관심이나 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동그라미표(○) 하여 주십시오.

부모님(또는 보호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 성적 관리에 신경 쓰신다	①	②	③	④	⑤
5) 진로·전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를 격려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기분을 맞추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를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III. 방과후 교육활동 및 교육비

6 가정의 월 평균 총 가구소득(급여, 상여금, 재산소득, 생활보조금 등 포함)은 얼마입니까?

예시 월 평균 총 가구소득이 212만 원인 경우, (세금 제외 전) 총 가구소득 월 만원

총 가구소득(세금 제외 전) 월 만원

7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총 비용(공교육, 사교육, 교재비 모두 포함)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 '2)(설문지를 가져 온) 자녀의 월 평균 총 교육비'는 '1) 모든 자녀의 월 평균 총 교육비'보다 클 수 없습니다.

1) 모든 자녀의 월 평균 총 교육비 월 만원

2)(설문지를 가져 온) 자녀의 월 평균 총 교육비 월 만원

8 (설문지를 가져 온) 자녀는 다음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거의 이용하지 않음	일주일에 1회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4-5회	거의 매일 이용함
1) EBS 교육프로그램(공중파/위성방송/인터넷 등)	①	②	③	④	⑤
2) 무료 사이버강학습 프로그램(꿀책사/e-스터디 등)	①	②	③	④	⑤